

研究論文

18세기 왕실 문헌의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

김 주 필*

I. 연구의 방향	IV. 결론
II. ㄷ구개음화	<참고문헌>
III. 원순모음화	<국문요약>

I. 연구의 방향

언어 사용자의 사회 계층에 따라 언어의 변이 상태가 다르듯이, 국어의 변화도 문헌의 간행에 참여한 화자나 필자의 사회적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¹⁾ 그렇다면 사대부와 같은 상류층의 지식인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²⁾ 왕실 문헌에는 상류 계층의 언어 사용 상태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특정 언어 집단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은 언어의 변이 상태를 통하여 드러난다. 그러므로 왕실 문헌의 언어 사용에 대한 접근도 진행 중인 음운변화의 변이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 음운론 전공(jpkim@kookmin.ac.kr).

1) 홍윤표, 『근대국어 연구 1』(태학사, 1994), 74~76쪽, 김주필, 「18세기 역서류 문헌과 왕실 문헌의 음운현상」, 제17회 국어사학회 여름학술대회 논문집(2004c), 83~96쪽, 김주필 「18세기 중후기 왕실 문헌의 ‘·’ 변화」, 『어문연구』, 122호(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b), 41~68쪽
 2) 박용만, 「영조 어체책의 자료적 성격」, 『장서각』, 제11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19~21쪽

근대국어 시기의 대표적인 음운변화 현상인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 예들을 통하여 18세기 왕실 문헌의 언어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모음에 의한 자음의 동화 현상인 구개음화와 자음에 의한 모음의 동화 현상인 원순모음화 현상은 조건변화 현상이므로 여러 문헌들의 상태를 계량화하여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18세기 왕실 문헌인 영조 대의 《어제내훈》(1737), 《어제상훈언해》(1745), 《어제훈서언해》(1756), 《어제》와 《경세문답》³⁾(1762~1776?, 이하 《어경》으로 약칭하기로 함), 정조 대 《운음》⁴⁾의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 상태를 계량적으로⁵⁾ 검토하여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의 확산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18세기 왕실 문헌 가운데 영조 대 후기에 간행된 《어경》의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 상태를, 유사한 시기의 불서류 《지장경언해》(1762), 자석류 《주해천자문》(1752), 역서류 《박통사신석언해》(1764) 등과 비교하여 이들 문헌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두 방향에서의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18세기 왕실 문헌의 특성을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의 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 3) 《어제》와 《경세문답》의 서지 사항에 대해서는 안병희, 「왕실 자료의 한글 필사본에 대한 국어학적 검토」, 『장서각』, 제1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1~20쪽, 이현희, 「장서각 소장 영조대 한글 문헌」, 『장서각』, 제2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이래호, 「장서각 소장 유일본 어제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장서각』, 제5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239~263쪽, 박용만, 위의 논문, 5~26쪽, 김주필, 「영조의 어제에 나타난 ‘·’와 ‘-’의 표기와 음성 실현 양상」, 『어문학논총』, 23권(국민대 어문학연구소, 2004a), 89~117쪽 등을 참조할 것
- 4)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운음》은 규장각 소장의 《운음》으로서, 전북대학교 국문과에서 1978년에 영인한, 1781년에서 1795년 사이의 ‘운음’ 22 편이다 15년 정도의 시차가 있으므로 이 시간대에도 변화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편의상 동질적인 자료로 묶어 활용하기로 한다.
- 5) 본 연구의 계량화 방법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였다. ① 문헌의 자료를 한글97로 입력하여, ②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 환경의 모든 어절을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문자열 검색프로그램인 hgrep97을 활용하여 어절 단위의 모든 용례를 추출한다. ③ 추출된 어절에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의 변화 유형, 어휘 특성, 음운 환경 등에 따라 분류 번호 부여하여, ④ 분류한 자료에 따라 각 분류 번호를 항목화하여 엑셀(Excel)로 전환하고 ⑤ 필요한 예들을 추출하여 계량화하였다.

II. ㄷ구개음화

《어제내훈》(1737, 총 17,816어절)

	변화 유형	전체 (2,138)	고유어		한자어
			어휘 (어두/비어두)	문법 (경계/문법)	
구개음화	ㄷ > ㅈ	11	4(1/3)	5(1/4)	2
	ㅌ > ㅊ	1	0/0	1/0	0
과도교정	ㅈ > ㄷ	2	0/0	0/0	2
	ㅊ > ㅌ	0	0/0	0/0	0
그대로	ㄷ	994	368(115/253)	541(20/521)	35
	ㅌ	238	78(23/55)	150(15/135)	10
	ㅈ	744	504(270/234)	57(4/53)	183
	ㅊ	148	97(22/75)	4(4/0)	47

- 1) ㄷ > ㅈ : ▼ 어휘 \$1 죠흥 \$2 엇개). ▼ 문법 \$2 서지 \$3 써나자 \$4 게어르지 掩護호지 ▼ 경계 \$2 쓰지나라. ▼ 한자음: \$1 경흥, \$2 진주와
 2) ㅌ > ㅊ : ▼ 형태소 경계 \$2 구침이 굳힘이.
 3) ㅈ > ㄷ : ▼ 한자음: \$1 덩덩, \$2 덩덩.

《어제내훈》에서는 총 1,254회의 환경에서 12회가 구개음화되어 나타났다. ‘ㄷ’은 총 1,015회의 환경에서 11회가 구개음화되어 나타났으며, ‘ㅌ’은 239회 가운데 1회만 구개음화되어 나타났다. 고유어에서는 비어두 음절에서 8회, 어두음절에서는 ‘죠흥’에 1회 나타났으며, 형태소 경계에서도 ‘쓰지나라(뜻이나라), 구침이(굳힘이)’에 2회 나타났다. 한자어에서는 47회의 환경에서 ‘경흥, 진주’에 2회 나타났다. 과도교정은 한자어 ‘덩덩(漸漸)’에 2회 나타났다. 구개음화가 확산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나타난 이러한 예들은 과도교정이 구개음화가 생산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에 나타나는 표기상의 혼란이라는 기존의 논의가 타당하지 않음을 말해준다.⁶⁾ 오히려 이 예들은 구개음화가 확산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구개음화된 형태를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간주하여, 구개음화와 관련 없는 형태를 구개음화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과도로 교정했다는 근래의 주장이 타당함을 말해준다.

6) 국어사 문헌에 나타나는 표기와 음운현상의 대응관계에 대해서는 김주필, 「음운변화와 표기의 대응관계」, 『국어학』, 32집(국어학회, 1998), 49~76쪽을 참조.

《어제상훈언해》(1745, 총 2,212어절)

	변화 유형	전체 (371)	고유어		한자어
			어휘N (어두/비어두)	문법 (경계/문법)	
구개음화	ㄷ>ㅈ	1	0/0	1/0	0
	ㅌ>ㅊ	0	0/0	0/0	0
과도교정	ㅈ>ㄷ	2	2/0	0/0	0
	ㅊ>ㅌ	0	0/0	0/0	0
그대로	ㄷ	171	44(7/37)	54(2/52)	73
	ㅌ	80	0/0	34(0/34)	46
	ㅈ	90	13(6/7)	4(0/4)	73
	ㅊ	27	1(0/1)	0(0/0)	26

- 1) ㄷ>ㅈ: ▼ 문법: 경계: \$2 맞져란
- 2) ㅈ>ㄷ: ▼ 어휘: \$1 더브리움이 더브릴

《어제상훈언해》에도 구개음화된 예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총 252회의 환경에서 ‘맞져란’에 1회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도교정의 예가 ‘저브리.’에 2회 나타났다. 이 문헌 역시 구개음화가 그리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교정의 예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과도교정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타당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과도교정은 구개음화와 환경은 같으면서도 입력부와 출력부의 교체되는 음이 상반된다는 점에서 원래의 구개음을 치조음으로 교체한 과도교정의 예들에는 구개음화를 거부하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된다.

《어제내훈》과 《어제상훈언해》에 나타나는 구개음화와 과도교정을 통하여 왕실 문헌에 나타나는 다음 몇 가지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18세기 전반기의 왕실 문헌에 구개음화가 미미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 둘째, 그러한 상태에서도 구개음화가 진행 중인 현상으로 의식되고 있었다는 점, 셋째, 진행 중인 음운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거부 의식이 과도교정에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왕실 문헌의 특성은 변화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현대 사회의 상류층에서 보여주는 언어 태도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어제훈서언해》에는 다음 도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음화 예들이 다소 많아 지기는 하였으나 구개음화가 크게 확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7)

《어제훈서언해》(1756, 총 4,296어절)

	변화 유형	전체 (811)	고유어		한자어
			어휘 (어두/비어두)	문법 (경제/문법)	
구개음화	ㄷ > ㅈ	12	4(1/3)	6(0/6)	2
	ㅌ > ㅊ	0	0	0	0
과도교정	ㅈ > ㄷ	53	32(5/27)	7(0/7)	14
	ㅊ > ㅌ	12	7(0/7)	1(1/0)	4
그대로	ㄷ	335	105(13/92)	128(0/128)	102
	ㅌ	127	6(3/3)	57(0/57)	64
	ㅈ	236	56(39/17)	15(0/15)	165
	ㅊ	36	3(1/2)	0(0/0)	33

- 1) ㄷ > ㅈ: ▼ 어휘 \$1 저 \$2 엇저(3). ▼ 문법 \$1 듯저 \$2 밧드저 \$3 고요과저 어긋과저 평티과저 효도과저. ▼ 한자음: 중, 중용구경에
- 2) ㅈ > ㄷ: ▼ 어휘: \$1 디엇다, 디으매, 디으시고, 딛기느, 딛다, \$2 가딛(2), 오딛(3), 문딛(2), 가디, 가디를, 가더, 가더오기를, \$3 흥가디(16). ▼ 문법: \$3 알고더, 취코더, \$4 서울식디, 이젯그디(2), 빅디식디, \$5 오늘날식디 ▼ 한자음: 단실(2), 단황과, 던혀, 데와, 듀공이, 듀아위, 둥인이, 왕다(2), 갈던혀야, 윤디도느, 윤디도름, 한당둥유의게
- 3) ㅊ > ㅌ: ▼ 어휘 \$2 그티다, 그티디, 그티느, 그틴, 굿티시고, 슷티음건대 \$3 어그릇터 ▼ 경제 \$2 낫타. ▼ 한자음: 티티히, 티티느, 티티히, 티티느

총 474회의 환경에서 12 회가 구개음화되어 2.7% 정도의 확산 비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평음 ‘ㄷ’은 374 회의 환경에서 12 회가 구개음화되어 나타났으나 격음 ‘ㅌ’은 127회의 환경에서 구개음화된 예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문법형태소에서 ‘-디, -과더, -과더’가 ‘-지, 과저, -과저’로 나타났고, 어휘형태소의 ‘-더, 엇더’가 각각 ‘-저, 엇저’로 나타나 형태소의 종류와 빈도에 있어 이전 문헌에 비해 다소 확산된 상태를 보여준다. 한자어에서는 ‘둥(中), 둥용(中庸)’의 ‘둥’이 ‘중’으로 구개음화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과도교정은 65회나 되어 구개음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구개음화가 그리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교정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진행 중

7) 언어 변화에서 시간의 길이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언어 변화의 점진적인 확산에 대해서는 Wang, W. S.-Y., "Competing Change as a cause of residue," *Language*, 45(1969)와 Chen, Matthew and Hshin-I Hsieh, "The time variable in phonological change," *Journal of Linguistics*, 7(1971)을 참조.

인 구개음화를 바람직한 변화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화자나 필자들의 거부 의식이 그만큼 과도교정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구개음화보다 과도교정의 예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구개음화가 어느 정도 확산되기는 하였으나 일반화되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진행 중인 음운변화를 거부하려는 의식이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추정된다.

《어제/경세문답》(1762~1776?, 총 14,257어절)

	변화 유형	전체 (2,460)	고유어		한자어
			어휘 (어두/비어두)	문법 (경계/문법)	
구개음화	ㄷ > ㅈ	66	6(3/3)	1(0/1)	59
	ㅌ > ㅊ	62	16(1/15)	13(12/1)	33
과도교정	ㅈ > ㄷ	34	12(5/7)	1(1/0)	21
	ㅊ > ㅌ	7	5(0/5)	1(1/0)	1
그대로	ㄷ	1,072	394(46/348)	452(1/451)	226
	ㅌ	274	6(2/4)	145(19/126)	123
	ㅈ	734	206(111/95)	46(0/46)	482
	ㅊ	211	36(7/29)	2(2/0)	173

- 1) ㄷ > ㅈ: ▼ 어휘 \$1 저3), \$2 더저시니 싸져 써러지고 ▼ 문법 \$3 후과져 ▼ 한자음 전에 전전흔 제를, 주지, 명제흔, 슈제흔니, 승정, 스저의, 금일제를, 금일제의 정신은, 구질에 지우현 불쵸의, 지지흔, 지취, 진압하면, 저하니, 적심을 전에, 전천추와 정문상의 정신들이 정정하나, 정즈의,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호에, 제하고, 증귀를, 증화를 지지흔, 칠질을 과장하고, 과장하나, 방장과, 즈장과, 계제 대저 대저, 던정의 동정의서 면전의 왕정이 익제를, 전전흔, 정정하나, 좁저로, 츠제 관중과 관중이, 누주통의에 탁주는 심이디지와 허헝진상이, 후이디지, 녹아장을, 금과옥좌.
- 2) ㅌ > ㅊ: ▼ 어휘: \$1 치는, \$2 곳칠, 들치디, 브치디(3), 붓치남, 붓치리라, 씨차(4), 고쳐, 들쳐, 벗쳐시니, 붓쳐, \$3 좃붓친 ▼ 문법: 경계: \$2 벗치, 붓치를, 다쳐시면, \$3 이긋치, \$4 혼글긋치, 혼글긋치(6), \$5 경계함긋치 ▼ 내부: \$2 키쳐로 ▼ 한자음 침테하니를 침테(4), 도척의 과철흔, 낙축이, 서축에, 청축하미, 착의흔, 척강(9), 척념하(2), 척연홀, 첩보하야, 추회하미, 고치를, 기친, 깃치며, 의착하미, 화창하더면, 경척하노라, 전철이, 후철이
- 3) ㅈ > ㄷ: ▼ 어휘: \$1 디고져, 디는, 디문, 디의, 디혀며, \$2 문디며(2), \$3 거습디면, 거습디므로, 못디예, \$4 브르지디미, 어르문디시 ▼ 문법: 경계 \$2 나디나 ▼ 한자음 디권에 디(2), 디척문외에, 당에, 당주(5), 덩섭, 덩하는, 도사(詔書 3), 데왈디라, 데즈의 안덩하교, 질덩티 하던에, 금슈당을.
- 4) ㅊ > ㅌ: ▼ 어휘 \$2 굿터라, 굿터며, 굿터미, 슷터간대, 그릇터며 ▼ 문법: 경계 \$2 갓티 ▼ 한자음 \$1 텃망고저

《어제》와 《경세문답》, 즉 《어경》에서는 이전 시기의 왕실 문헌에 비해 구개음화가 다소 확산된 상태를 보여준다. 총 1,474회의 환경에서 128회가 구개음화되어 8.7% 정도의 확산 비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고유어는 총 1,033 회의 환경에서 36회가 구개음화되어 3.5% 정도의 확산 비율을 보여준다. 어두 음절에서는 총 400회 중에서 22회가, 비어두 음절에서는 597 회 중에서 14 회가 구개음화되어 어두 음절에서 구개음화 예들이 많이 나타났다. 한자음에서는 총 441 회의 환경에서 92회가 구개음화되어 20% 정도 확산된 것으로 나타나 고유어보다 한자음에서 구개음화 예들이 많이 나타났다. 과도교정은 총 47회로서 고유어에서 27회, 한자어에서 22회 나타났다. 고유어 어두 음절에서 5 회, 비어두 음절에서 14 회 나타났으며, 14회 가운데 형태소 경계에서 2회 나타났다.8)

고유어의 문법형태소에서는 총 577회의 환경에서 ‘ㄷ’이 1 회, ‘ㅌ’이 1 회 구개음화되어, 문법형태소에서는 구개음화 예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문법형태소에서는 과도교정의 예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와 같은 문법형태소에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문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특성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개음화가 고유어 문법형태소에서부터 시작되어 형태소 경계, 어휘형태소로 확산되기 때문에 문법형태소에서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이 문헌의 다른 구개음화 예들을 참고로 할 때, 이 문헌에 문법형태소의 구개음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제 언어에서는 문법형태소에서도 구개음화가 어느 정도 확산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헌을 간행하면서 편찬 기준으로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를 사용한다는 원칙을 정하여 전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9)

8) 구개음화와 과도교정에 대해서는 김주필, 「구개음화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국어연구』, 68호(국어연구회, 1985); 김주필, 『17·8세기 구개음화와 관련 음운현상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4); 김주원, 「구개음화와 과도교정」, 『국어학』, 29집(국어학회, 1997), 33-50 쪽; 최전승,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한신문화사, 1986); 최전승, 「언어 변화와 과도교정의 기능」, 『국어학 신연구(II)』(탑출판사, 1987); Labov, W., *Sociolinguistic Patter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Inc., 1972) 등을 참조

9) 문헌을 편찬할 때에 그 문헌의 언어 사용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떤 문헌에서나 필요한 작업이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의 15세기 문헌에 사용된 정제된 언어 상태가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면, 왕실 보관의 유일본을 편찬하고자 했던 이러한 왕실 문헌의 편찬에 시에도 언어 사용의 원칙이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문법형태소와 달리 형태소 경계에서는 13회가 구개음화되어 나타났으며 과도 교정의 예도 ‘ㄷ’과 ‘ㅌ’에 각각 한 예씩 나타났다. 고유어의 어휘형태소에서는 총 412회 중에서 ‘ㄷ’이 6회, ‘ㅌ’이 16회 구개음화되어 나타났다. 어휘형태소에서의 구개음화는 상대적으로 비어두 음절보다 어두 음절에서 보다 활발하게 일어났다. 비어두 음절에서는 총 370회의 환경에서 18회가 구개음화되어 나타났지만, 어두 음절에서는 총 48회 가운데 18회가 구개음화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총 441회의 환경에서 92회가 구개음화된 한자어의 구개음화는 20.9%로 나타나 전체적인 구개음화 비율인 8.7%를 훨씬 상회하였다.

18세기 중후기에 해당하는 영조 대 후기의 문헌인 《어경》은 이전의 왕실 문헌에 비해서는 구개음화가 다소 확산된 상태이긴 하지만, 같은 시기의 다른 부류의 문헌과 비교하면 이 문헌에서도 구개음화는 그리 많이 확산된 상태는 아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도교정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 문헌의 언해자나 편찬자는 구개음화를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과도교정이 많이 나타난다든가 문법형태소에 구개음화의 예가 몇 예에 불과하다든가 하는 특성은 왕실 문헌의 언해자나 편찬자의 구개음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실제의 음성 층위든 표기의 층위이든 구개음화가 적용된 형태를 가능하면 배제하려는 이러한 의도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왕실 문헌은 다른 부류의 문헌에서보다 음운변화에 대하여 보수적인 특성을 드러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운음》에서는 구개음화가 거의 일반화되었다고 할 만큼 많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나 구개음화 예(‘ㄷ>ㅌ’, ‘ㅌ>ㄷ’)를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에서는 구개음화되지 않은 예들을 제시하였다. 《운음》에서는 총 1,475회의 환경에서, 1,313회가 구개음화되어 89% 정도의 확산 비율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율은 《어경》의 8.7%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확산된 상태로서 《운음》에 이르러 왕실 문헌에서도 구개음화가 일반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구개음화되지 않은 총 162회 가운데 146회가 한자어로서, 구개음화되지 않은 대부분이 예들이 한자어에서 나타났다.

고유어에서는 구개음화되지 않은 예가 16회, 한자어에서는 146회로 나타났다. 고유어에서 구개음화되지 않은 예는 의존 명사 ‘디’ 6회, 부정의 어미 ‘-디’ 1회였다. 어휘형태소의 비어두 음절에서 구개음화되지 않은 예는 ‘건디미니, 엇디’였고,

어두 음절에서 구개음화되지 않은 예는 ‘디나-(1), 돛-(3)’이었다. 이러한 구개음화의 확산 상태에서 고유어에 과도교정이 5회 나타났다. 어두 음절의 ‘당만호여, 도금도, 도희’와, 제2음절의 ‘몬더’ 등이 그 예들로서 이 형태들은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도 과도교정의 형태로 나타나던 예들이었다.

《윤음》(1781~1795, 총 19,686어절)

	변화 유형	전체 (3,302)	고유어		한자어
			어휘 (어두/비어두)	문법 (경제/문법)	
구개음화	ㄷ>ㅌ	996	281(76/205)	398(0/398)	317
	ㅌ>ㄷ	317	99(5/94)	130(31/99)	88
과도교정	ㅌ>ㄷ	23	5(4/1)	0	18
	ㄷ>ㅌ	1	0	0	1
그대로	ㄷ	132	7(5/2)	7(0/7)	118
	ㅌ	30	1(0/1)	1(1/0)	28
	ㅌ	1,507	383(169/214)	90(0/90)	1034
	ㄷ	296	81(56/25)	10(9/1)	205

- 1) ㄷ>ㅌ: ▼ 어휘 \$1 당만호여, 도금도, 도희(2), \$2 몬더 ▼ 한자음: 디비호마(進拂), 덩사(政事 2), 데도름(制度), 데민창(濟民, 2), 데향의(祭享), 듀역(周易, 2), 대덩(大靜, 2), 법대(法制, 2), 어데(4), 하던이(廈廨)
- 2) ㅌ>ㄷ: ▼ 한자음: 호두(胡椒).
- 3) ㄷ>ㅌ: ▼ 어휘 \$1 디난, 도치, 도근, 도타, 도홀 \$2 건디미니, 엇디 ▼ 문법 \$2 밋 \$3 굿디라, 니를디라, 저근디라, \$4 니르느디라, 빅성인디라, \$5 싱각호느디라 ▼ 한자음: 던히, 덩대용으로써, 덩렬부, 덩지검(2), 덩호호기를 인던, 고도끼, 싱도라, 월도에 정되도를 조종도, 디경에(地境, 2), 당흥(長興, 2), 던(展), 던거호여(奠居), 던과(展), 던교(傳教), 던교호야, 던년흔(顛連), 던비홀식(展拜), 던에(典?), 던접홀(奠掇), 던하의(殿下), 덩닐을(貞烈), 덩봉호느(停捧), 덩퇴(停退) 홀, 덩호마(寇), 덩호시고, 덩홀, 도가(朝家 5), 도관관(朝官), 도석을(朝夕), 도야를(朝野), 도정(朝廷, 11), 도홀호마(甲櫛), 당마, 경등을 궁등, 등, 등궁의, 등아예, 등에, 도, 등외(中外), 등하의, 등히, 등호고, 등호야, 등호음을 등홀, 종등호야(從重), 협등으로부터, 녹디(陸地), 산당의(山堂?), 조당호여(自當?), 텅디(天地, 5), 기던(8), 낭던(兩殿), 너던을(內殿), 대던례대료(大殿禮), 사던을(敎典), 상던(上典), 시던의(市廛), 요던의(魚), 이던흠은(移轉), 이던호기의, 이던호느, 이던호느, 이던홀, 전던호여(轉轉, 2), 지던(慈殿 4), 지대들이, 지대를, 지홀던축(字恤典則), 지대(次第), 형대(兄弟 5), 국도에(國朝), 선도기축의(先朝), 선도에, 억도의(億兆), 갑두, 농궁던의, 속대던(續大典), 널성도로부터
- 4) ㅌ>ㄷ: ▼ 어휘 \$2 바티고 ▼ 문법: 경제 \$2 호터(자). ▼ 한자음: 텅구상스를 튜성, 경텅으로부터, 박던형을, 목툰이, 산툰시를, 신패(辛丑), 총음텅보, 텅근이, 텅디(5), 텅명을 텅서(2), 텅질(2), 텅하를, 텅해, 텅결호야(締結), 상던이, 일테료(3), 평던하, 흥툰-忠.

한자어에서는 총 551회의 환경에서 405회가 구개음화되어 나타나 구개음화가 고유어에서만큼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자어에서는 ‘ㄷ’을 ‘ㄷ’으로 한 과도교정이 18회, ‘ㄷ’을 ‘ㄷ’으로 한 과도교정이 1회 나타났다 이러한 한자어의 구개음화와 과도교정의 상태를 통해 구개음화는 왕실 문헌에서 초기 상태에는 한자어가 고유어보다 다소 빨리 확산되지만, 후기 상태에 구개음화되지 않고 남아 있는 예들도 한자어에 많다는 점에서 구개음화 규칙이 어휘에 적용되는 시간적 길이는 고유어와 한자어에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¹⁰⁾

이상에서 검토한 18세기 왕실 문헌의 구개음화는 다음 도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문헌	어제내훈 (1737)	상훈언해 (1745)	훈서언해 (1756)	어·경 (1762-76)	윤음(정조) (1790-95)
ㄷ>ㅈ	1.1% (11/1015)	0.6% (1/172)	3.7% (13/347)	5.8% (66/1138)	88.3% (996/1128)
ㅌ>ㅈ	0.4% (1/239)	0% (0/80)	0% (0/127)	18.5% (62/336)	91.4% (317/347)
합계	1.0% (12/1254)	0.4% (1/252)	2.7% (13/474)	8.7% (128/1474)	89.0% (1313/1475)

도표에서와 같이 18세기 왕실 문헌의 구개음화는 《어제내훈》 1%, 《어제상훈언해》 0.4%, 《어제훈서언해》 2.7%, 《어경》 8.7%, 《윤음》 89%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어경》 이전에는 구개음화가 매우 미미한 상태에서 있다가 영조대 후기 문헌인 《어경》에서 다소 확산된 상태에 이르고 정조대의 《윤음》에 이르러 구개음화가 거의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개음화의 확산 과정은 사회적 계층에 따른 언어 변이형의 사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S자-곡선(S-curve)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언어 변화의 과정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¹¹⁾ 즉 1750년대 이전에 간행

10) 《윤음》에서는 한자어의 구개음화 상태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상태를 완성 단계로 간주하기에는 어렵다. 《윤음》이 1780년대에서 1800년에 가까운 시기에 걸치는 시간의 흐름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개음화되지 않은 예들이 어느 시기의 어떤 《윤음》에서 나타나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좀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된 《어제내훈》 《어제상훈언해》, 《어제훈서언해》 등에서는 매우 미미한 상태에 있던 구개음화가 《어경》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1780년대

《주해천자문》(1752, 총 6,062어절)

	변화 유형	전체 (552)	고유어		한자어
			어휘 (어두/비어두)	문법 (경계/문법)	
구개음화	ㄷ>ㄱ	96	23(7/16)	0	73
	ㅌ>ㄷ	45	16(3/13)	0	29
과도교정	ㄱ>ㄷ	5	5(0/5)	0	0
	ㄷ>ㅌ	0	0	0	0
그대로	ㄷ	99	21(7/14)	0	78
	ㅌ	10	3(0/3)	0	7
	ㄱ	207	65(45/20)	1	141
	ㄷ	90	16(7/9)	0	74

- 1) ㄷ>ㄱ: ▼ 어휘 \$1 지남 직닐 직힐 직힐 짚 쥘 쥘 저를\$2 더질 맞질 잇(어), 키,\$3 쓴혀질 써러질, 허러질, 허야질 ▼ 한자음 池 못{ 지}, 知 알{ 지}, 持 가달{ 지} 知 지해{ 지} 若 {지해} 약, 知 {지해} 지, 直 쓸{ 직}, 直 곳물{ 직}, 直 다만{ 직}, 陳 {진} 진, 陳 진 {진}, 陳 무글{ 진}, 陳 베플{ 직}, 珍 보백{ 직}, 澄 들골{ 직} 幟 장 유 幟 장, 장 長 긴 {장}, 帳 장 {장}, 長 기리 {장}, 場 마당 {장}, 長 미양 {장}, 長 어룬 {장}, 腸 창주 {장}, 張 커질 {장}, 張 활지을 {장}, 夫 {장부} 부, 傳 관전 {진}, 轉 구울 {진}, 傳 글월 {진}, 傳 역전 {진}, 傳 전홀 {진}, 轉 구울일 {진}, 禪 {전홀} 선, 傳 {전홀} 전, 切 근절 {절}, 節 마디 {절}, 切 버힐 {절} 節 절조 쥘 節 존찰 쥘 節 절조 쥘 節 쥘 조 奏 {절주} 주, 貞 고들 {정}, 朝 아침 {조}, 趙 조국 조, 朝 조당 조, 朝 조화 쥘 趙 풀밀 {조}, 趙 {조국} 조, 朝 {조당} 조, 王 {조화} 왕, 朝 {조화} 조, 晝 낮 {쥘}, 誅 버힐 {쥘}, 誅 꾸지쥘 {쥘}, 宙 집마디 {쥘}, 筍 {죽순} 순, 簡 {죽책} 간, 策 {죽책} 책, 重 겹 {중}, 重 다시 {중}, 中 마글 {중}, 中 마칠 {중}, 中 중도 {중}, 中 가운데 {중}, 重 무거운 {중}, 中 {중도} 중, 華 {중화} 화, 傳 관궐 전, 傳 역전 전, 節 존절, 節 箱 수워전 상.
- 2) ㅌ>ㄷ: ▼ 어휘: \$1 찰(3), \$2 고찰(2), \$2 내찰(4), 밀찰 바칠 깨칠 업찰 \$3 놀애칠 물리찰(2). ▼ 한자음: 植 들 {치}, 植 세울 {치}, 致 닐일 {치}, 治 다스 {치}, 馳 들랄 {치}, 治 치슈 {치} 致 근질 {치}, 治 다스릴 {치}, 恥 붓그릴 {치}, 治 {치슈} 치, 老 {치스홀} 로, 勅 직석 {칙}, 勅 다스릴 {칙}, 勅 {직석} 직, 沈 즘길 쥘, 陟 올올 쥘, 超 쥘 쥘 超 너뵈 쥘 招 브를 {초}, 逸 {초일홀}, 寵 필 {충}, 寵 스랑 {충}, 抽 싸힐 {쥘}, 稅 {쥘복홀}, 逐 쥘 쥘 {쥘}, 逐 쥘 쥘 {쥘}, 黜 내칠 {출}, 忠 충성 {충}, 忠 {충성} 충.
- 3) ㄱ>ㄷ: ▼ 어휘: \$2 가달(3), 겨딤 도디게

11) 언어변화의 패턴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변이형의 사회적 분화에서 드러나는 S자 곡선에 대해서는 Trudgill, P., *The Social Differentiation of English in Norwi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을 참조

이후의 《운음》에서는 90% 정도로 확산됨으로써 《어경》과 《운음》의 구개음화 확산 상태가 급격한 변화를 겪어 그래프로 나타내면 S자 모양의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이다.¹²⁾

그럼 왕실 문헌 가운데 영조 대 후기에 간행된 《어경》의 구개음화 상태를, 유사한 시기에 간행된 다른 부류의 문헌과 대비해 보기로 한다.

《주해천자문》에서도 총 250회의 환경 가운데 141 회가 구개음화되어 전체적으로 56.4%의 구개음화 비율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개음화의 확산 비율은 한자어나 고유어에서 모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며, 고유어의 어두 음절과 비어두 음절에서도 모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구개음화의 비율에 비해 과도교정의 예는 고유어의 비어두 음절에서 5회 나타나는 데에 그치고 있다. 구개음화가 상당히 일반화되어 과도교정은 극히 일부의 예가 나타나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구개음화와 과도교정의 상태를 《어경》의 8.7% 정도의 확산 비율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어경》보다 10년 이상 일찍 간행된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헌에서는 구개음화가 일반화되어 가는 단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장경언해》는 전반적으로 구개음화가 그리 확산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구개음화는 7.5% 정도의 확산 비율을 보여주어 《어경》의 8.7% 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보여준다. 한자어에서는 10% 정도에 이르지만 고유어에서는 구개음화 비율은 이보다도 현저하게 낮다. 고유어에 있어서도 어두 음절에서는 구개음화가 전혀 보이지 않고 비어두 음절에서만 문법형태소에서 6회, 어휘형태소에서 12회 보인다. 고유어에서는 과도교정이 68 회나 나타나 구개음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불경 언해서는 구개음화가 일찍 나타나 다른 부류의 문헌보다 빨리 확산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문헌은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현재로서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문헌이 함경도 문헌에서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방언적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12) 구개음화의 일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Kim, Joo phil, "The Dynamic Pattern of t-Palatalization and its Hypercorrection,"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4(Institute of the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1), pp. 37~58. 음운변화의 보편적인 기제에 대해서는 Kiparsky, Paul, "The Phonological Basis of Sound Change," John A. Goldsmith(ed.), *The Handbook of Phonological Theory*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1996), pp. 640-670. 등을 참조

《지장경언해》(1762, 총 10,676어절)

	변화 유형	전체 (2,192)	고유어		한자어
			어휘 (어두/비어두)	문법 (경계/문법)	
구개음화	ㄷ>ㅈ	80	9(0/9)	3(0/3)	68
	ㅌ>ㅊ	11	3(0/3)	3(0/3)	5
과도교정	ㅈ>ㄷ	112	67(24/43)	0	45
	ㅊ>ㅌ	2	1(0/1)	0	1
그대로	ㄷ	806	170(71/99)	109(4/105)	527
	ㅌ	321	133(2/131)	34(0/34)	154
	ㅈ	576	110(63/47)	42(5/37)	424
	ㅊ	284	8(1/7)	1(0/1)	276

- 1) ㄷ>ㅈ: ▼ 어휘: \$2 잇진닐고, 더지샤, 모진, \$3 머거지다, 흥야지다, 뼈러져, 썩러져2), 썩러질던 ▼ 문법: \$3 니르지2), 잇과샤 ▼ 한자어: 지연히, 지장보살5), 지장이5), 지장외, 체호미, 증고을, 증에, 증의25), 증죄을4), 증흥면, 증흥야, 보제의, 부제, 경증3), 관증시, 구증싱, 권증, 등증이, 딘증히, 몽증의2), 세증의, 슈증금석, 싱증의, 취증의, 녹도증의, 불법증의, 싱스증의, 녹옥천증의, 염나왕증, 제불교증의.
- 2) ㅌ>ㅊ: ▼ 어휘: \$2 고치되, 부침, \$3 드러치니 ▼ 문법: 의논취, 퇴던2). ▼ 한자어: 천인증으로, 철환, 순철이요, 녹옥천증의, 축누인천품.
- 3) ㅈ>ㄷ: ▼ 어휘: \$1 디뤄3), 디어, 디어도, 디오매, 디오며2), 디오면2), 디운2), 딘내노, 딘거늘, 딘게, 딘고, 딘드려, 딘, 딘이, 딘이며2), 딘쓸히어나, 딘디, 딘츠로, \$2 가디4), 가디료4), 가디며, 가딘12), 가딘, 가딘, 그디4), 그디업서, 그디업시, 글디이나흠, 아딘, 오딘10), \$3 흥가디로 ▼ 한자어: 디극흥5), 디불을, 딘과, 딘디흥, 딘근티, 딘근흥야, 데교을, 듀워, 둥, 둥과, 둥원을, 둥싱2), 둥싱니, 둥싱을8), 벽디불, 벽디불명즈을, 벽디불상과, 벽디불3), 당다의, 당다즈드려, 시듀흥거나, 회둥에, 회둥외3), 스둥들희게, 대회둥위, 옥성둥위, 인턴둥위, 싱스둥의, 찬양디장딘공덕.
- 4) ㅊ>ㅌ: ▼ 어휘: \$3 그르팀, ▼ 한자어: 던만억.

《박통사신석언해》에서는 총 1,211회의 구개음화 환경에서 626회가 구개음화되어 51.7% 정도의 확산 비율을 보여준다. 고유어에서는 592 회가 구개음화되어 구개음화되지 않은 540회보다 많이 나타났으며, 한자어에서는 구개음화된 예가 34회로 구개음화되지 않은 43회보다 적게 나타났다. 과도교정은 고유어에서 29회, 한자어에서 2회 모두 ‘ㅈ’을 ‘ㄷ’으로 교정한 예들이었다. 그러므로 한자어보다는 고유어에서 구개음화가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과도교정은 고유어나 한자어 모두 ‘ㄷ’에 한하여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박통사신석언해》(1764, 총 15,681어절)

	변화 유형	전체 (2,122)	고유어		한자어
			어휘 (어두/비어두)	문법 (경계/문법)	
구개음화	ㄷ>ㅈ	448	155(56/99)	262(5/257)	31
	ㅌ>ㅊ	178	76(43/33)	99(25/74)	3
과도교정	ㅈ>ㄷ	31	29(26/3)	0	2
	ㅊ>ㅌ	0	0	0	0
그대로	ㄷ	550	486(455/31)	21(0/21)	43
	ㅌ	35	29(18/11)	4(0/4)	2
	ㅈ	782	561(286/275)	126(0/126)	95
	ㅊ	98	38(8/30)	15(15/0)	45

- 1) ㄷ>ㅈ: ▼ 어휘 \$1 씻고 씻는 씻는 ㅈ(8), 지경 지기니 지난 지나가니 자(6), 자(8), 지르고 지며, 지새에, 지우지, 지우(9), 지리여, 질리엇는이라 질채(2), 집고 집팡이 집흙, 징징이 질, 자른, 저(3), 저(4), 저름 저름 저를 저의게 저적위 저즘위 접시와 제\$2 거짐애 건질, 고지식이, 고지식헌(4), 다질러 다질러 문지러는 싸질 엇(63), 징징이질 퍼지지 퍼질, 맞져, \$3 구러지름 구러짐을 문혀지(3), 스러지리라 싸야(8), 써러지고 하야지니 훗터자(6), \$4 것구러져, 것구러자(3). ▼ 문법 경계 \$2 고지 \$3 빵다지와 이바지를 이바지하면, 외다지와. ▼ 문법: 쓸지라, ㅈ튼지라, 업는지라, 부르난지라, 어려운지라 行樂홀지라, 浩蕩홀지라, 지차린지 ‘어간+ - 지 부장’ (248). ▼ 한자음 지쳐홀, 진덕진, 진덕홀, 지금으란, 지연홀여, 지함을 질 강(7), 장(2), 전당홀리, 전홀여 정(2), 중미 중(2), 중품에, 상직홀여, 하직홀고, 디적홀리오, 일정(3), 대죽
- 2) ㅌ>ㅊ: ▼ 어휘: 차(24), 차아(6), 칠(6), 처(5), 처다가, 체홀리오, 밋치판나름 고차(9), 굽치니 피치고, 썰치고, 고쳐(2), 굽쳐(2), 체쳐 구르치지, 느리치니, 드리치니, 드리쳐(6), 마조치니, 써러치(3), 더위쳐, 써러쳐 ▼ 문법 경계 \$2 ㅈ치, ㅈ치고, ㅈ쳐, ㅈ친, 무친, ㅈ치엇고, 무친, 바쳐는, 가치엇는, 거치고, 부치고(4), 부쳐, 부쳐오를, 부쳐와, 부쳐느냐 \$3 너고치, ㅈ고치, 이고치, 먹당고치, \$4 璧月고치, 血點고치, 親兄弟고치. ▼ 문법: 燈臺만치, 五寸만치, 부정의 ‘타’(72). ▼ 한자음: 침향, 대청이
- 3) ㅈ>ㄷ: ▼ 어휘: 디디여(2), 디단(2), 디질러, 슬다(2), 당만홀여, 진딧, 던갈이로다, 던메오~ 던메우(-11), 둥(6), 흥덩이라, 가락디와. ▼ 한자음: 도리와, 둥인을

고유어의 문법형태소에서는 총 356회의 환경에서 ‘ㄷ’이 257회, ‘ㅌ’이 74회로 모두 331회가 구개음화되어 나타났고, 구개음화되지 않은 예는 ‘ㄷ’이 21회, ‘ㅌ’이 4회로 모두 25회 나타났다. 형태소 경계에서는 ‘ㄷ’이 5회, ‘ㅌ’이 25회로, ‘ㄷ’이든 ‘ㅌ’이든 모두 구개음화되어 나타났으나, 과도교정은 한 예도 나타나지 않았다. 고유어의 어휘형태소에서는 총 670회의 환경에서 231회가 구개음화되어 나타났으나 구개음화되지 않은 515회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어휘형태소의 어두

음절에서는 99회가 구개음화되어 나타나 구개음화되지 않은 473 회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비어두 음절에서는 132회가 구개음화되어 구개음화되지 않은 42 회보다 3배 정도 많이 나타났다. 과도교정은 어두 음절에서 26 회 나타났다

앞에서 검토했던 영조 대 후기의 《어경》과 이들 문헌의 구개음화 상태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문헌	어·경 (1762-76)	주해천자문 (1752)	지장경언해 (1762)	박통사신석언해 (1764)
ㄷ>ㅌ	5.8% (66/1138)	49.2% (96/195)	9.0% (80/886)	44.9% (448/998)
ㅌ>ㄷ	18.5% (62/336)	81.8% (45/55)	3.3% (11/332)	83.6% (178/213)
합계	8.7% (128/1474)	56.4% (141/250)	7.5% (91/1218)	51.7% (626/1211)

《주해천자문》은 56.4%, 《박통사신석언해》는 51.7%로서 구개음화의 확산 비율이 《어경》의 8.7%보다 현저하게 높다. 이러한 문헌을 시기의 차이만 고려하면 구개음화의 확산 과정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없을 것이다. 《지장경언해》는 7.5%로서 《어경》의 8.7%와 유사한 확산 비율을 보여주지만 구개음화가 비어두 음절에서만 나타나며 고유어에서 매우 미미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리고 과도교정이 특정의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어경》과 동질성을 갖지 않는다. 이와 같이 여러 부류의 문헌을 동일한 성격의 자료로 이용하게 되면, 구개음화의 과정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을 할 가능성까지 내포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원순모음화

《어제내훈》에는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가 모두 나타난다. 다음 도표에서와 같이 《어제내훈》에서는 총 927회의 환경에서 13 회의 원순모음화가 나타나 원순모음화가 매우 미미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어제내훈》(1737)¹³⁾

	변화 유형	전체 (1,681)	고유어		한자어
			어휘 (어두/비어두)	경계·문법 ¹⁴⁾	
원순모음화 ¹⁵⁾	→ㄷ	5	5(3/2)	0	0
	·>ㄴ	18	18(0/18)	0	0
비원순모음화	ㄷ>ㅌ	8	7(7/0)	0	1
	ㄴ>ㄷ	2	2(1/1)	0	0
그대로	ㅡ	428	274(164/110)	136	18
	·	486	350(305/45)	95	41
	ㄷ	137	95(95/0)	0	42
	ㄴ	597	542(520/22)	0	55

- 1) →ㄷ: ▼ 어휘 \$1 무슴 물 부즈런이 \$2 더부리 드무니
- 2) ·>ㄴ: ▼ 어휘 \$2 너모(4회), \$3 그러모랴(4회), 깃브모로 덕희모로, 이러모랴(8).
- 3) ㄷ>ㅌ: ▼ 어휘: \$1 못사름과, 불휘, 붓그려(2회), 붓그라(2), 붓쓰레 ▼ 한자어 \$1 問問.
- 4) ㄴ>ㄷ: ▼ 어휘: \$1 비야흐로, \$2 즈뭇

《어제내훈》에서 원순모음화의 예들은 한자어에서는 보이지 않고 고유어에서만 나타났다. 원순모음화 가운데 먼저 ‘→ㄷ’ 변화를 보기로 한다 ‘→ㄷ’ 변화는 어두 음절에서 원순모음화의 환경에 있는 167회 가운데 3회, 비어두 음절에서 112회 가운데 2회가 원순모음화되어 나타났다. 원순모음화의 예들이 이러한 정도이므로 이 문헌에서 원순모음화는 진행 중에 있었기는 하지만 그리 확산되지 않은 상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13) 《어제 내훈》에서 ‘ㅂ’과 ‘ㅃ’으로 끝나는 명사나 용언 어간 다음에 ‘·’나 ‘ㅡ’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분철 표기된 예들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예들이 원순모음화의 환경에 있는 빈도는 ‘ㅂ+ㅇ’은 152회, ‘ㅃ+ㅇ’은 571회 나타나며, ‘ㅂ+ㅇ’은 1회, ‘ㅃ+ㅇ’은 9회 보인다. 그러나 이 환경에서 원순모음화된 예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문헌들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따로 언급하지 않으며, 표에서도 제외하였다.
- 14) 원순모음화의 환경을 분류하는 기준은 구개음화와 달리 하여 형태소 경계와 문법형태소를 별도로 나누지 않았다. 18세기 문헌에는 형태소 경계에서 원순모음화의 예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태소 경계와 문법형태소를 분리하는 작업에 비해 그 결과는 그만한 의미를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15) 이 문헌의 ‘모서시(므서시), 문흐다(뭇흐다), 몸으랴(뭇으랴)’는 모두 순자음 다음의 ‘나 ㅌ’가 변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원순모음화와 관련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의 원순모음화 경향과 비교하여 매우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표기상의 오류로 간주하여 이 예들은 원순모음화 관련 예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대부분의 국어사 문헌에서 ‘·>ㄴ’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가 비어두 음절에서는 이미 대부분 ‘ㅡ’로 바뀌었기 때문이며, 어두 음절에서는 ‘·’가 ‘ㅏ’로 바뀌는 변화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문헌에도 ‘·>ㄴ’ 변화를 직접 보여주는 예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너모(4회), 그러모로(4회), 깃브모로, 덕희모로, 이러모로(8)’ 등과 같이 비어두 음절에서 나타난 ‘ㅡ>ㄴ’ 교체는 ‘·>ㄴ’ 변화를 상정해야 설명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 예들은 순자음 다음의 ‘ㅡ’가 ‘ㄴ’로 바뀐 것으로서 일반적인 원순모음화 현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 예들은 비어두 음절에서 ‘ㅡ>·’ 변화로 만들어진 ‘·’에 다시 ‘·>ㄴ’ 변화 규칙이 적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문헌에는 비원순모음화의 예들도 나타나는데, 원순모음화보다는 비원순모음화의 예들이 다소 많이 나타났다. 총 10회의 비원순모음화 예들이 보이는데, ‘ㄷ>ㅡ’ 변화가 8회, ‘ㄴ>·’ 변화가 2회 나타났다. ‘즈뫓’이 ‘즈뫓’으로 바뀐 예를 제외하면 비원순모음화 현상은 모두 어두 음절에서 나타났다. ‘즈뫓’이 ‘즈뫓’으로 바뀐 ‘ㄴ>·’ 비원순모음화는 ‘너모, 그러모로, 깃브모로, 덕희모로, 이러모로’ 등에서 추정되는 ‘ㅡ>·’ 변화와 함께 이 시기에도 비어두 음절에서 ‘·’가 모두 ‘ㅡ’로 바뀌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어제상훈언해》(1745)

	변화 유형	전체 (227)	고유어		한자어
			어휘 (어두/비어두)	경계·문법	
원순모음화	ㅡ>ㄷ	4	4(4/0)	0	0
	·>ㄴ	1	0	1	0
비원순모음화	ㄷ>ㅡ	1	1(1/0)	0	0
	ㄴ>·	1	1(1/0)	0	0
그대로	ㅡ	14	9(5/4)	2	3
	·	77	49(32/17)	0	28
	ㄷ	42	4(3/1)	0	38
	ㄴ	87	51(49/2)	0	36

1) ㅡ>ㄷ: ▶ 어휘: \$1 무슴, 부료디, 부즈런이, 부즈런히.

2) ·>ㄴ: ▼ 문법: \$2 니보리오(?).

3) ㄷ>ㅡ: ▶ 어휘: \$1 품엇더니

4) ㄴ>·: ▶ 어휘: \$1 브야호로

《어제상훈언해》에서 원순모음화는 총 95회의 환경에서 4회 나타났다. 어두 음절에서만 나타난 ‘->ㅌ’ 변화는 총 9회의 환경에서 4회 나타났다 2) 에 제시된 ‘니보리오’는 ‘니브리오’ 또는 ‘니브리오’가 변화한 형태이다. 제2음절의 ‘브’나 ‘브’가 ‘보’로 나타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후기 중세국어에 나타나던 의도법 선어말 어미 ‘오’, ‘·>ㅌ’ 원순모음화 등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의도법의 선어말 어미 ‘오’의 잔존형으로 보기보다는 원순모음화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른 왕실 문헌에도 비어두 음절의 ‘·’가 ‘ㅌ’로 되는 예들이 있기 때문이다. ‘니보리오’가 ‘니브리오’에서 변화한 형태라면 ‘->·’ 변화를 거쳐 ‘·>ㅌ’ 변화가 적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비원순모음화는 어두 음절에서 ‘ㅌ>ㅌ’ 변화와 ‘ㅌ>·’ 변화가 각각 1회씩 나타났다. ‘ㅌ>ㅌ’ 교체는 ‘품엇더니’가 ‘품엇더니’로, ‘ㅌ>·’ 교체는 ‘보야호로’가 ‘브야호로’로 나타난 것이다. 대부분의 국어사 문헌에서 어두 음절의 ‘·’가 ‘ㅌ’ 원순모음화되는 예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왕실 문헌의 ‘보야호로>브야호로’에 보이는 ‘ㅌ>·’ 비원순모음화 현상은 매우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예가 특이하다고 하여 이 ‘ㅌ>·’ 변화가 표기 상의 오류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보야호로’가 변화한 ‘브야호로’에 ‘·>ㅌ’ 변화가 적용되면 현대국어에서 사용되는 ‘바야호로’가 도출되기 때문에 이 문헌의 ‘ㅌ>·’ 비원순모음화도 음성 층위에서 일어난 변화임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어제 훈서언해》(1756)

	변화 유형	전체 (590)	고유어		한자어
			어휘 (어두/비어두)	경계·문법	
원순모음화	->ㅌ	10	6(4/2)	1	3
	·>ㅌ	0	0	0	0
비원순모음화	ㅌ>ㅌ	1	1(1/0)	0	0
	ㅌ>·	0	0	0	0
그대로	ㅌ	131	40(14/36)	62	19
	·	182	105(86/19)	0	77
	ㅌ	108	20(20/0)	0	88
	ㅌ	158	102(93/9)	0	56

1) ->ㅌ: ▼ 어휘: \$1 무어슬 부리기를(2 회), 불고 \$2 지문 \$4 고기수풀은 ▼ 문법 \$3 후로부터 ▼ 한자어: 북(北)애, 북(北)엿, 붕등(朋騰)호야.
 2) ㅌ>ㅌ: ▼ 어휘 \$1 붓그럽도소니

《어제훈서언해》 역시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가 나타나지만, 이전의 문헌에 비해 그리 확산되지는 않았다. 원순모음화는 총 325회의 환경에서 10회가 나타났고 비원순모음화는 1회 나타나는 데에 그쳤기 때문이다. 원순모음화는 비어두 음절에서 2회 나타났¹⁶⁾ 한자어에서는 원순모음화 현상은 3회 나타났지만, 비원순모음화는 한 예도 나타나지 않았다. 비원순모음화는 어두 음절에서 ‘벗그립도소니’ 한 예 나타나 어제류 문헌에서 비원순모음화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ㄴ’ 원순모음화나 ‘ㄴ>·’ 비원순모음화는 어두 음절과 비어두 음절에서 단 한 예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제/경세문답》(1762~1776?)

	변화 유형	전체 (2,173)	고유어		한자어
			어휘 (어두/비어두)	경계·문법	
원순모음화	→ㄷ	11	4(4/0)	2	5
	·>ㄴ	3	0	3	0
비원순모음화	ㄷ>→	38	38(38/0)	0	0
	ㄴ>·	5	5(5/0)	0	0
그대로	→	614	280(102/178)	273	61
	·	463	327(268/59)	3	133
	ㄷ	251	101(96/5)	0	150
	ㄴ	788	454(402/52)	0	334

- 1) →ㄷ: ▼ 어휘 \$1 무어시 부리되 부르물 푸디 ▼ 문법\$2 너분\$4 나면서부터 ▼ 한자어 꺾랄
뵤와흔, 뵤하냐, 뵤하야, 곤뵤하야
2) ·>ㄴ: ▼ 문법 \$4 말미아모미 시봉호모매 아니호문
3) ㄷ>→: ▼ 어휘 \$1 목고 목어 목은 북 鼓3), 불 佛), 불회로 붓그리오 붓그립1), 붓그(9),
붓그리고, 붓그리며4), 붓그리물, 붓그립 쓰리며
4) ㄴ>·: ▼ 어휘: \$1 보야호로5).

《어경》에서 총 1,091 회에서 14회가 원순모음화되어 나타났다. 순자음 뒤에서의 ‘→ㄷ’ 변화가 11회, ‘·>ㄴ’ 변화가 3회 나타났다. ‘→ㄷ’ 변화는 고유어에서 6회, 한자어에서 5회 나타났으며, 어두 음절과 비어두 음절에서 모두 나타났다. 또한 고유어에서는 문법 형태소에서 1회, 형태소 경계에서 1회, 어휘형태소에서 4

16) ‘고기수풀’의 ‘풀’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단독형 ‘풀’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비어두 음절에서는 ‘저문’ 한 예 나타났다고 할 수도 있다. ‘수풀’의 15세기 형태는 ‘수풀(『석보』 三, 30b)임.

회 나타났다. 《어경》의 원순모음화 예들에서 특이한 것은 형태소 경계에서 ‘말
막아모미, 시봉흐모매, 아니흐문’ 등과 같이 ‘·>ㄱ’ 변화가 3회 나타났다는 것이
다.¹⁷⁾ 이 예들은 모두 명사형 어미 ‘ㄹ’ 뒤에서 ‘·’가 ‘ㄱ’로 된 예들로서, 이러한
원순모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음체계 상에서 ‘ㄱ’와 [원순성]의 대립을 보이
는 ‘·’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어경》에서의 ‘·>ㄱ’ 변화는 이 시
기의 왕실 문헌에서 비어두 음절의 ‘·’가 모두 ‘ㄱ’로 바뀐 것이 아님을 보여준
다. 그러나 어두 음절에서는 ‘·>ㄱ’ 변화가 1회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경》에서도 원순모음화의 예들보다는 오히려 비원순모음화의 예들이 많이
나타났다. ‘ㄷ>ㅌ’ 비원순모음화는 총 38회가 나타났으며, ‘ㄱ>·’ 비원순모음화는
‘브야흐로’ 한 어휘에만 5회 나타났다. 비원순모음화는 고유어의 어두 음절에서
‘ㄷ>ㅌ’ 변화와 ‘ㄱ>·’ 변화가 모두 나타났다. ‘ㄷ>ㅌ’ 변화는 빈도로는 총 38회
나타났지만, 형태소로 보면 ‘묵, 북(鼓 3), 불화(3)~ 불희, 붓그리오~ 붓그립
-(11), 붓그라(16), 쓰라’ 등 어휘형태소 5개에 한정되어 나타났다. ‘ㄱ>·’ 변화
는 ‘브야흐로’ 한 형태소에 5회 반복하여 나타났다.

《운음》에서는 총 1418회 중에서 220회가 원순모음화되어 나타났다. 원순모음
화 가운데 ‘·>ㄱ’ 변화도 나타났지만 그 예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에 비해
‘ㅌ>ㄷ’ 변화는 이 문헌에서 상당히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ㅌ>ㄷ’ 변화는 총
766회의 환경에서 208회가 원순모음화되어 나타났는데, 한자어에서 45회, 고유어
에서 163회 나타났다. 고유어 어휘형태소의 비어두 음절에서는 총 292회 가운데
52회가 원순모음화되어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ㅌ>ㄷ’ 변화가 47회, ‘·>ㄱ’ 변
화가 5회 나타났다. 어두 음절에서는 총 465회의 환경에서 82회가 원순모음화되
어 나타났으나, 예들은 모두 ‘ㅌ’에 국한되었다. 고유어 문법형태소에서는 총 40회의
환경에서 24회가, 형태소 경계에서는 총 150회의 환경에서 17회가 원순모음화되어
나타났다. 문법 형태소에서는 ‘·>ㄱ’ 변화의 예가 없었으나 형태소경계에서는 7회
나타났다. 《운음》에서는 용언의 명사형어미 ‘ㄹ’ 다음에 오는 ‘ㅌ’가 ‘ㄷ’로 바뀐
예도 일부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예들이 원순모음화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17) 《어경》에서 명사형 어미 ‘ㄹ’ 다음에 오는 ‘·’는 원순모음화된 예들이 보이지만 동일한 환경
에서 ‘ㅌ>ㄷ’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운음》(1781~1795)

	변화 유형	전체 (2,801)	고유어		한자어
			어휘 (어두/비어두)	경계·문법	
원순모음화	→ㅌ	208	129(82/47)	34	45
	·>ㄱ	12	5(0/5)	7	0
비원순모음화	ㅌ>ㅍ	26	23(23/0)	0	3
	ㄱ>·	14	14(12/2)	0	0
그대로	ㅍ	558	339(116/223)	150	69
	·	640	284(267/17)	6	350
	ㅌ	430	85(70/15)	0	345
	ㄱ	913	615(549/66)	0	298

- 1) →ㅌ: ▼ 어휘 \$1 부뚫쳐, 부르미(2), 부르미요, 부르지쳐 부르지자(6), 부어 부으면 부즈런이 부즈런히(9), 불굴, 불녀(2), 불뚫는(2), 불에 뚫는 뚫들고 뚫쳐 뚫쳐 뚫쳐시니 썰이시라 풀고져, 풀우혜, 부쳐(브쳐, 2), 부쳐내여 부쳐시니 부쳐(5), 무겹고 무던흥 무뚫(3), 무리(13), 무겹고, 무슨, 무슨, 무어스료(2), 무어슬(2), 무어시, 무지게, 물(6), 물꺾의서, 물곡식의, 물지고, 뒤휴지, \$2 가부아이, 거뒤휴이, 깃부(5), 더부러(13), 베푸는, 불뚫는(3), 비부르고, 비불으면, 비불은, 슬푸다(3), 초불을, 촉불이, 헐썩러(<헐썩리다), 헐썩리고(3), 베푼(2), 베푼이, 베푼이라, 저뚫쳐뚫쳐야, 가무다가, 나물신지, 머무러, 머뚫기물, 허물이, 허물며(3), \$3 가족부치라. ▼ 문법: 썩부터, \$\$부터(4), 예엿분, \$\$\$부터(8), \$\$\$\$부터(8), 어극흥으로부터, 거문, 시무기의, 시무며, 푸문, 지버무는, 그러무로, 물니물, 이러무로 ▼ 한자어 부덕을, 부덕이나, 부덕이라, 부덕친작이, 부도흔는, 부동흔야, 부족다, 부족흔, 북관(5), 북도(4), 북땡(2), 북슈, 북(3), 북풍이, 불케흔, 남북관, 관북, 동북, 전불괘검흔, 덩털부, 물선(2), 물휘, 곡물노뻘, 곡물(2), 공물, 만물, 방물, 어물이란, 직물(4).
- 2) ·>ㄱ: ▼ 어휘 \$2 다뚫, 스뚫느니, 스뚫지, 스뚫춘, 스뚫춌더니 ▼ 문법 \$3 그러므로, 보내모로부터, 엄흐모로도, 이러모로, 이시모로부터, \$4 두려흐모로, 층첩흐모로.
- 3) ㅌ>ㅍ: ▼ 어휘 \$1 므르며<뚫), 불상야(6), 불상치, 불상한(1), 불상(8), 비기를, 비어, 비지, 뚫을, 불희, 북. ▼ 한자어: 풍괘, 풍지도, 일반본의.
- 4) ㄱ>·: ▼ 어휘 \$1 비야흐로(5), 바야흐로(7), \$2 즈뚫(2).

《운음》에서도 《어경》에서와 같이 순자음 다음 위치에서 ‘→ㅌ’ 변화뿐만 아니라 ‘·>ㄱ’ 변화도 나타났다. 《어경》과 《운음》의 분량에도 관계되겠지만, 《어경》에서보다 오히려 《운음》에서 ‘·>ㄱ’ 변화를 보이는 예들의 분포가 다양하고 빈도도 높게 나타났다. ‘다뚫, 스뚫(4)’ 등의 어휘형태소에서 5회 ‘그러므로, 보내모로부터, 엄흐모로도, 이러모로, 이시모로부터, 두려흐모로, 층첩흐모로’ 등 용언의 명사형 ‘ㅍ’ 뒤에서 7회 나타났다. 비어두 음절에서 ‘·>ㄱ’ 변화를 보이는 이 예들 역시 《운음》이 간행되던 시기에 비어두 음절의 ‘·’가

모두 ‘一’로 바뀐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운음》에는 두 종류의 비원순모음화가 모두 나타났으며, 그 예들은 모두 어휘 형태소에 국한하여 나타났다. ‘ㄷ>一’ 변화의 예로 ‘므르며(<문), 불샹(16), 비(4), 불희, 북’ 등의 어휘형태소에서 23회, 한자어에서 ‘풍괘, 풍지도, 일반받 등 3회가 나타났다. ‘ㄴ>·’ 비원순모음화로는 ‘비아흐로(5), 브야흐로(7), 즈뫓(2)’에서 총 14회가 나타났다. 이러한 ‘ㄴ>·’ 변화는 ‘·>ㄴ’ 변화와 함께 《운음》에 나타나는 비어두 음절의 ‘·’가 모두 ‘一’로 바뀐 것이 아니며, 어두 음절의 ‘·’가 모두 ‘ㅏ’로 바뀐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자료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검토한 18세기 왕실 문헌의 원순모음화 상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문헌	어제내훈 (1737)	상훈언해 (1745)	훈서언해 (1756)	어·경 (1762-76)	운음(정조) (1790-95)
一>ㄷ	1.2% (5/433)	28.6% (4/18)	8.4% (12/143)	1.8% (11/625)	27.2% (208/766)
·>ㄴ	3.6% (18/504)	1.3% (1/78)	0% (0/182)	1.3% (6/466)	1.8% (12/652)
합계	2.5% (23/937)	5.2% (5/96)	3.7% (12/325)	1.6% (17/1091)	15.5% (220/1418)

왕실 문헌의 원순모음화는 《어제내훈》 2.5%, 《어제상훈언해》 5.2%, 《어제훈서언해》 3.7%, 《어경》 1.6%, 《운음》 15.5% 정도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경》에서의 원순모음화가 《어제내훈》, 《어제상훈언해》, 《어제훈서언해》보다 낮으며 《운음》의 15.5% 보다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변화의 과정이 구개 음화처럼 S자 곡선을 그리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원순모음화는 ‘一>ㄷ’ 원순모음화와 ‘·>ㄴ’ 원순모음화를 모두 포괄한 비율로서 ‘·’의 원순모음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ㄴ’ 원순모음화는 어두 음절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모두 비어두 음절에서 일어난 결과이다. 이러한 사정은 ‘·’가 어두 음절에서는 ‘ㅏ’로 변화하는 현상과 충돌하고, 비어두 음절에서는 이미 상당히 많은 ‘·’가 ‘一’로 변화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一>ㄷ’ 원순모음화만 비교한다면 28.6%의 확산 비율

을 보여주는 《어제상훈언해》를 제외하면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어경》과 《운음》에서 다소 빠르게 확산되는 완만한 S자 곡선을 그리게 된다. 사실 《어제상훈언해》의 28.6%는 총 18회의 원순모음화 환경에서 4회(어휘로는 3개)가 원순모음화된 것으로서 28.6% 라는 비율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를 검토하면 분명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원순모음화의 확산 과정도 완만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S자 곡선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음운변화의 과정을 따르지 않나 생각된다. 그럼 이제 18세기 왕실 문헌의 원순모음화 현상을 다른 여러 부류의 문헌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주해천자문》(1752)

	변화 유형	전체 (452)	고유어		한자어
			어휘 (어두/비어두)	경계·문법	
원순모음화	→ㅌ	57	43(31/12)	5	9
	·>ㅌ	2	0	2	0
비원순모음화	ㅌ>ㅍ	9	8(7/1)	0	1
	ㅌ>ㅍ	2	2(1/1)	0	0
그대로	ㅍ	79	44(17/27)	30	5
	ㅍ	94	55(46/9)	2	37
	ㅌ	92	28(21/7)	0	64
	ㅌ	117	61(55/6)	0	56

- 1) →ㅌ: ▼ 어휘: \$1 重 {무거울} 중, 鈞 {무거울} 균, 何 {무름} 하, 頓 {문득} 툇, 奄 {문득} 업, 池 {물} 타, 沛 {물} 패, 淡 {물거덩} 담, 湯 {물결} 상, 州 {물지} 주, 外 {물리찰} 외, 退 {물리찰} 퇴, 惡 {귀울} 오, 要 {부름} 요, 唱 {부름} 창, 兄 {부름} 황, 靑 {푸름} 청, 莽 {풀} 망, 莽 {풀} 무, 釋 {풀} 석, 草 {풀} 초, 解 {풀} 기, 趨 {풀} 풀, 主 {씨} 주, 火 {불} 화, 絳 {불} 갈, 紫 {불} 자, 赤 {불} 적, 頓 {무덤} 툇, 傳 {부름} 부, 屬 {부름} 부, 屬 {부름} 슈, 扶 {부름} 부, 短 {나무라함} 단 ▼ 문법: \$2 俯 {구름} 부, 紉 {밧} 양, 隲 {수름} 은, 取 {자름} 추, 羈 {자름} 파 ▼ 한자음: 不 {아닐} 불, 弗 {불제} 불, 弗 {아닐} 불, 物 {것} 물, 勿 {기} 물, 勿 {말} 물, 物 {일} 물, 弗 {불져} 불, 資 {지름} 자
- 2) ·>ㅌ: 없음
- 3) ㅌ>ㅍ: ▼ 어휘: \$1 吹 {불} 취, 匪 {부름} 피, 公 {부름} 공, 肅 {부름} 수, 窳 {부름} 유, 庫 {부름} 구, 懷 {품음} 회, \$2 秉 {벼름} 병 ▼ 한자음: 性 {성품} 성
- 4) ㅌ>ㅍ: ▼ 어휘: \$1 方 {바야흐로} 방, 頗 {자름} 파 * \$2 樹 {나무} 슈

《주해천자문》에는 원순모음화가 상당히 확산되었음을 보여주지만 비원순모음화는 그렇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원순모음화 가운데 ‘·>ㅌ’ 변화는 나타나지 않

고 ‘→ㅓ’ 변화만 나타났다. ‘→ㅓ’ 변화는 총 137회의 환경에서 58회가 원순모음화되어 42% 이상의 확산 비율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율은 고유어에서 더욱 높아, 총 88회 가운데 44회가 원순모음화되어 50% 정도의 확산 비율을 보여주며, 어두 음절만 계산하면 총 48회의 환경에서 31회가 원순모음화되어 65% 정도의 확산 비율을 보여준다.

이러한 원순모음화의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원순모음화는 매우 미미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자음에서 1회, 고유어의 어두음절에서 7회 비어두 음절에서 1회 비원순모음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문헌에서도 ‘·>ㅓ’ 원순모음화나 ‘ㅓ>·’ 비원순모음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ㅓ>·’ 비원순모음화는 ‘브야흐로’와 ‘즈뭇’ 등에 나타났다. ‘나무’도 원래의 형태인 ‘나모’의 제2음절에서 ‘ㅓ>·’ 변화를 거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⁸⁾ 어두 음절이든 비어두 음절이든 ‘ㅓ>·’ 변화를 보이는 예들은 이 문헌의 편찬 시기에 ‘·’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로 판단된다.

《지장경언해》에서도 ‘→ㅓ’ 원순모음화나 ‘ㅓ>·’ 비원순모음화는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의 변화와 관련되는 ‘·>ㅓ’ 원순모음화나 ‘ㅓ>·’ 비원순모음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ㅓ’ 원순모음화는 총 233회의 환경에서 69회가 원순모음화되어 30% 정도의 확산 비율을 보여준다. 한자어에서는 총 81회의 환경에서 18회가 일어나 23% 정도의 확산 비율을 보여준다. 고유어의 경우, 문법형태소에서 66회 중에서 33회가 원순모음화되어 50% 정도의 확산 비율을 보여주며, 어휘형태소의 어두 음절에서는 총 45회의 환경에서 27회가 원순모음화되어 약 45%의 확산 비율을 보여준다.

이 문헌에서 한자음이나 고유어의 어두 음절에서 ‘·>ㅓ’ 변화는 보여주지 않는다. 어휘형태소의 비어두 음절에서 ‘즈뭇락, 스뭇고(2회), 고평’가 원순모음화되어 각각 ‘즈모락, 스뭇고(2회), 고평’로 나타났다. 문법형태소에서는 ‘블브며, 올ㅄ며, 감ㅎㅄ로’ 등이 ‘·>ㅓ’ 변화를 거치지 않고 ‘블보며, 올모며, 감ㅎ모로’로 나타나 ‘·’가 ‘ㅓ’로 원순모음화되어 나타났다. ‘·>ㅓ’ 변화를 보이는 이 예들 역시 이 문헌의 편찬 시기에 비어두 음절에서 ‘·’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18) ‘나모>나무’ 변화는 순자음 다음의 ‘ㅓ’에 ‘ㅓ>·’ 변화, ‘·>ㅓ’ 변화, ‘→ㅓ’ 변화가 순차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나모’의 ‘ㅓ’가 바로 ‘ㅓ’로 교체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지장경언해》(1762)

	변화 유형	전체 (1,832)	고유어		한자어
			어휘 (어두/비어두)	경계·문법	
원순모음화	→>ㅌ	69	18(18/0)	33	18
	·>ㄴ	7	4(0/4)	3	0
비원순모음화	ㅌ>ㄹ	41	16(16/0)	0	25
	ㄴ>·	1	1(0/1)	0	0
그대로	ㄹ	164	68(27/41)	33	63
	·	249	137(125/12)	6	106
	ㅌ	481	163(163/0)	0	318
	ㄴ	820	297(286/11)	0	523

- 1) →>ㅌ: ▼ 어휘: \$1 무거워(2), 무더니, 무던니, 무셔워흐시면, 무어시러던고, 부우며(2), 부즈러니, 부즐어니, 부티면, 분드러, 불러, 불을, 불이, 불이사, 붓터, \$2 저품미. ▼ 문법: \$2 가무미, 가무며, 가풀, 겁부터(3), 겁분터(2), 겁푸리니, 나문, 네부터, 노풀와, 술무며, 지부미, 디뵈(3), 지뵈, \$3 너나문(4), 일노부터, 희을부터, \$4 구원겁부터(3), \$4 \$\$부터(3), \$5 \$\$\$부터(2), 디옥 글분터. ▼ 한자어: 불가량, 불가사의, 불가설(3), 불가스(의5), 불스(의5), 불효하며, 대불가스의, 동서남북.
- 2) ·>ㄴ: ▼ 어휘: \$2 즈모락, 스물고(2), \$3 비고포며 ▼ 문법: \$2 불보며, 울모며, \$3 감호모로
- 3) ㅌ>ㄹ: ▼ 어휘: \$1 므로되(3), 므르되, 므르되, 므리와, 므즈오되, 므리, 불마다, 불엔, 불으되, 불이, 불이어나, 못즈오시더니, 띄고, 띄며. ▼ 한자어: 므량겁, 불도을, 불법울(2), 불보살(2), 불상과, 불세존이, 불안으로, 붓테, 성불호미라, 성불호야, 계불과, 계불과로, 계불보살, 계불보살상, 계불이, 화불이, 만월불, 무상불, 벽디불(2), 산왕불, 신통품, 정월불
- 4) ㄴ>·: ▼ 어휘: \$2 즈문.

이 문헌에는 원순모음화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비원순모음화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ㅌ>ㄹ’ 비원순모음화의 예는 고유어에서 16회, 한자음에서 25회로서 총 41회가 나타났다. ‘ㅌ>ㄹ’ 변화는 고유어에서 16회, 한자음에서는 25회가 비원순모음화되어 나타났다. 고유어 어휘는 ‘므~므르(8회), 므리, 므리, 므(4회), 띄(2회)’ 등 5개의 한정되었고, 한자음에서는 ‘므(無), 불(佛, 22회), 붓테, 품(品) 등이었다. ‘ㄴ>·’ 비원순모음화는 ‘즈몹> 즈몹’에 1회 나타났다.

《박통사신석언해》에서는 ‘·’나 ‘ㄹ’이 원순모음화 환경에 있는 총 825회 가운데 208회가 원순모음화되어 25% 정도의 확산 비율을 보여준다. 총 208회의 환경에서, ‘→>ㅌ’ 변화는 191회였으며, ‘·>ㄴ’ 변화는 17회, 그것도 비어두 음절에서

음화되어 나타났다.¹⁹⁾ 어두 음절의 ‘-’는 총 254회의 환경에서 154회가 원순모음화되어 약 62%의 확산 비율로 나타났으나 ‘·’는 319회 가운데 단 하나의 원순모음화 예도 나타나지 않았다.

비원순모음화는 고유어 어휘형태소에서 비어두 음절과 어두 음절에서 모두 나타났다. 그러나 비원순모음화의 예들은 순자음 뒤의 ‘ㄷ>ㅌ’에 한정되어 나타났다 즉 고유어의 어휘형태소에서 ‘ㄷ>ㅌ’ 변화는 비어두 음절에서 7회, 어두 음절에서 12회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에서 ‘ㄱ>ㅋ’ 변화는 단 한 예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다른 문헌에서는 나타나는 ‘ㄱ>ㅋ’ 변화가 단 한 예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문헌에서 비어두 음절의 ‘·’가 대부분 ‘-’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의 검토 내용을 영조 대 후기의 《어경》과 다른 부류의 문헌에 나타난 원순모음화 확산 상태와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문헌	어·경 (1762-76)	주해천자문 (1752)	지장경언해 (1762)	박통사신석언해 (1764)
→ㄷ	1.8% (11/625)	41.9% (57/136)	29.6% (69/233)	41.0% (191/466)
·>ㅋ	1.3% (6/466)	2.1% (2/96)	2.7% (7/256)	4.8% (17/359)
합계	1.6% (17/1091)	25.4% (59/232)	15.5% (76/489)	25.2% (208/825)

《어경》의 원순모음화는 1.6%로서 《주해천자문》의 25.4%, 《지장경언해》의 15.5%, 《박통사신석언해》의 25.2%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의 변화와 관련하여 원순모음화를 거의 보여주지 않는 ‘·>ㅋ’ 원순모음화를 제외하고 ‘→ㄷ’ 원순모음화만 고려한다면, 《어경》은 1.8%로서 이들 각 문헌의 41.9%, 29.6%, 41%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상태의 확산 비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순모음화의 확산 과정도 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19) 비어두 음절에서 ‘·’가 원순모음화된 예는 ‘다뭇(5), 아모란(3)’ 두 어휘에 한정된다. 이들 예가 원순모음화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전 시기의 문헌 자료에 ‘다뭇, 아모란’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전 시기의 형태가 원래 어형인지 비원순모음화한 형태인지는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렵다.

가지로 왕실 문헌과 같이 동질적인 문헌 부류들을 중심으로 검토할 때에 보다 정확한 변화의 과정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이상에서 18세기 왕실 문헌에 나타나는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의 상태를 검토하고, 영조 대 후기에 간행된 《어경》을 자석류, 불서류, 역서류 문헌과 대비해 보았다. 이 대비에서 드러난 왕실 문헌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18세기 왕실 문헌에서 구개음화는 《어제내훈》에 1%, 《어제상훈언해》에 0.4%, 《어제훈서언해》에 2.7%, 《어경》에 8.7%로 《운음》에 89%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 변화로 인해 거의 나타나지 않는 ‘·>ㅓ’ 변화를 제외한 ‘->ㅓ’ 원순모음화는 《어제내훈》에 2.5%, 《어제상훈언해》에 5.2%, 《어제훈서언해》에 3.7%, 《어경》에 1.6%, 《운음》에 15.5%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18세기의 왕실 문헌에서의 구개음화와 ‘->ㅓ’ 원순모음화는 다른 사회적 부류의 문헌과 달리 18세기 중기까지 미미하고 느리게 확산되다가 18세기 후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S자 곡선과 같은 보편적인 음운변화의 과정을 보인다. 또한 다른 문헌에 비해 진행 중인 음운변화에 대한 거부 의식이 반영된 과도교정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왕실 문헌은 다른 부류보다 음운변화가 늦게 시작하여 느리게 확산되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왕실 문헌의 이러한 보수적인 특징은 사회언어학적 접근에서 드러나는 상류층의 언어 사용과 같다. 그것은 왕실 문헌의 간행에 참여한 사람들이 당시의 상류층인 사대부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왕실 문헌이 다른 부류의 문헌보다 보수적인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 같은 음운변화에 있어서 왕실 문헌들 사이에서는 일관적이고 보편적인 변화의 과정을 찾을 수 있지만, 여러 부류의 문헌을 섞어서 함께 검토하면 그렇지 못할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러므로 국어 음운변화의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문헌을 동질적인 사회적 부류로 나누어 각 문헌 부류에 나타나는 변화의 과정을 밝히는 작

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헌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사 연구는 대상 문헌의 간행에 참여한 화자나 언해자들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간행에 참여한 화자나 언해자의 사회적 특성을 알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문헌을 사회적·지리적 성격에 따라 몇몇 부류로 나누어 각 부류별로 국어의 변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각 문헌 부류별 검토를 통하여 문헌들 사이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드러난다면 그에 따라 국어사 문헌들을 재분류하여 개별적인 변화 현상의 과정을 검토·논의한다면 문헌을 통한 국어의 역사적 연구도 본 궤도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곽충구, 「원순모음화 및 비원순모음화」, 서울대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 동아출판사, 1990, 84~94쪽.
- 곽충구, 「구개음화 규칙의 발생과 그 확산」, 『진단학보』 92, 진단학회, 2001, 237~268쪽.
- 김주원, 「구개음화와 과도교정」, 『국어학』 29집, 국어학회, 1997, 33~50쪽.
- 김주필, 「구개음화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국어연구』 68호, 국어연구회, 1985.
- 김주필, 『17·8세기 구개음화와 관련 음운현상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김주필, 「음운변화와 표기의 대응관계」, 『국어학』 32집, 국어학회, 1998, 49~76쪽.
- 김주필, 「영조의 『어제』에 나타난 ‘·’와 ‘-’의 표기와 음성 실현 양상」, 『어문학논총』 23 권,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2004a, 89~117쪽.
- 김주필, 「18세기 중·후기 왕실 자료의 ‘·’ 변화」, 『어문연구』 122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b, 41~68쪽.
- 김주필, 「18세기 역서류 문헌과 왕실 문헌의 음운현상」, 『제7회 국어사학회 여름학술대회논문집』 2004c, 83~96쪽.
- 박용만, 「영조 어제책의 자료적 성격」, 『장서각』 제11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5~26쪽.
- 박종희, 「원순모음화 현상의 음운사적 연구」, 『국어국문학』 126호, 국어국문학회, 2001, 1~26쪽.
- 백두현, 「‘으, 오, 으, 우’의 대립관계와 원순모음화」, 『국어학』 17집, 국어학회, 1988, 177~202쪽.

- 백두현, 「원순모음화 ‘·>」형의 분포와 통시성」, 『국어학』 22집, 국어학회, 1992b, 341~370쪽.
- 송민, 『전기 근대국어 음운론 연구』, 『국어학총서』 제8호, 태학사, 1986.
- 안병희, 「왕실 자료의 한글 필사본에 대한 국어학적 검토」, 『장서각』 제1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1~20쪽.
- 이기문, 『국어사 개설』, 서울: 민중서관, 1961.
- 이기문, 『국어 음운사 연구』, 서울: 탑출판사, 1972.
- 이래호, 「장서각 소장 유일본 『어제』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장서각』 제5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239~263쪽.
- 이병근, 「19세기 후기 국어의 모음체계」, 『학술원 논문집』 9집, 학술원, 1970.
- 이병근, 「19세기 국어의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국어국문학』 72·73호, 국어국문학회, 1976, 67~80쪽.
- 이승녕, 『조선어 음운론 연구 제1집』, 서울: 을유문화사, 1949.
- 이현희, 「장서각 소장 영조대 한글 문헌」, 『장서각』 제2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전광현, 「17세기 국어의 연구」, 『국어연구』 19, 국어연구회, 1967.
- 전광현, 「18세기 후기국어의 일고찰」, 『논문집』 13, 전북대, 1971, 39~70쪽.
- 최전승,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서울: 한신문화사, 1986.
- 최전승, 「언어 변화와 파도교정의 기능」, 『국어학 신연구』II, 서울: 탑출판사, 1987.
- 최전승, 「원순모음화 현상의 내적 발달과 개별 방언어휘적 특질」, 『국어국문학』 34호, 국어국문학회, 1999, 103~150쪽.
- 홍윤표, 『근대국어 연구 1』, 서울: 태학사, 1994.

Chen, Matthew and Hshin-I Hsieh, "The time variable in phonological change." *Journal of Linguistics*, 7, 1971.

Kim, Joo-phil, "The Dynamic Pattern of t-Palatalization and its Hypercorrection: Historical Data from the Korean Central Dialect."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4, Institute of the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1, pp. 37~58.

Kiparsky, "Paul, The Phonological Basis of Sound Change." John A. Goldsmith(ed.), *The Handbook of Phonological Theory*.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1996, pp. 640~670.

Labov, W., *Sociolinguistic Patter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Inc., 1972.

Keller, Rudi, *Sprashwandel*. 1994, 이기숙(역), 『언어변화』, 서울: 서광학술자료사, 1994.

Trudgill, P., *The Social Differentiation of English in Norwi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Wang, W. S.-Y., "Competing Change as a cause of residue." *Language*, 45, 1969.

국문 요약

18세기 왕실 문헌에서 구개음화는 《어제내훈》에 1%, 《어제상훈언해》에 0.4%, 《어제훈서언해》에 2.7%, 《어경》에 8.7%로 《운음》에 89%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 변화로 인해 거의 나타나지 않는 ‘·>ɔ’ 변화를 제외한 ‘-→ɪ’ 원순모음화는 《어제내훈》에 2.5%, 《어제상훈언해》에 5.2%, 《어제훈서언해》에 3.7%, 《어경》에 1.6%, 《운음》에 15.5%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18세기의 왕실 문헌에서의 구개음화와 ‘-→ɪ’ 원순모음화는 다른 사회적 부류의 문헌과 달리 18세기 중기까지 미미한 상태에서 느리게 확산되다가 18세기 후기에 급속도로 확산되어 S자 곡선과 같은 보편적인 음운변화의 과정을 보인다. 그러므로 왕실 문헌의 구개음화와 ‘-→ɪ’ 원순모음화는 역서류 문헌, 자석류 문헌, 불서류 문헌 등에 비해 매우 느리게 확산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와 같이 보수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왕실 문헌의 언어 사용 상태는 사회언어학적 접근에서 드러나는 상류층의 언어 사용과 같은바, 그것은 왕실 문헌의 간행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대부라는 상류층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어의 음운변화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국어의 역사적 연구는 그 간행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문헌의 부류별로 이루어질 때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변화의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투고일 : 2006. 1. 13.

● 심사완료일 : 2006. 3. 2.

● 주제어(keyword) : 왕실 문헌(royal literatures), 구개음화(palatalization), 원순모음화(the change of unround vowels into round ones), 음운변화 (phonological changes), S자 곡선(the S-curve), 사회언어학적 접근(socio-linguistic approaches)